

##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 논란

해수부 산업계 요구 받아 들여 2년 연장 검토...환경단체 강력반발

### 한국 가입 런던의정서 내년부터 전면금지 산업계 "폐수 대란" 환경권 "생태계 교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로 예정됐던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슬러지, 침전물 등 폐수 찌꺼기)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시기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산업계는 내년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면 육지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폐수 대란'이 우려된다며 허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18일 여수시 삼일면 중흥동 중흥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허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현재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쓰레기의 양이 1억 3000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 오는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중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

리나라뿐인데다, 산업 폐수에 섞인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해양 오염은 물론,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육지정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면 '산업폐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을 근거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800여개의 폐수, 폐수오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양 투기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육상처리 시설이 없거나 처리시설에서 배출량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양 투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육상처리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대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해양수산부 방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0일 공개한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는 총 26만7733㎥, 폐수오니는 81만9828㎥에 달한다. 전남지역에서 배출된 산업 폐수는 지난 2011년 1만8920㎥에서 지난해 1만4915㎥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폐수 오키의 경우 지난해 2011년 2만754㎥이었던 것이 지난해 2만3821㎥으로 오히려 3000㎥ 가량 늘어났다.



"뽕통더위에 개학 연기합니다" 35도를 웃도는 '뽕통더위'가 2주일째 지속되면서 광주 일선 중학교가 개학 연기를 알리는 안내판을 정문에 설치했다. 19일 현재 광주지역 중학교 87곳 중 12곳이 개학을 연기했고, 41곳은 개학을 했지만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은행 인수 최소 3곳 준비

광주전남상공인연합·전북銀·대구銀, 비밀유지확약서 제출

### 지역인수추진위 우선협상권·인센티브 부여 촉구

오는 9월23일 광주은행 인수 예비심사 서류접수 마감을 앞두고, 최소 3곳의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이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매각 주관사의 광주은행 실사자료 정보 활용을 위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임 부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최근 매각 주관사에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광주상회의가 주최한 광주·전남상공인연합 회의에 도·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DGB금융지주(대구은행)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확약서는 매각 주관사가 매각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입찰안내서를 받아갈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자료

를 정보이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전에는 최소 3곳 이상이 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던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는 아직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현재 8개사로 구성된 출자자협의회를 주축으로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금·펀드 분야에서 지역 연고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밝힌 매각 추가 기준 도입 방안 가운데 지역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상주중인 기획단(T/F)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인수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 우선협상권과

인센티브 등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서류 접수는 9월23일까지이며 적격 입찰자(소프트리스트) 작성과 예비 입찰, 실사, 본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또는 11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상회의가 중심이 된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이날 '광주은행 지역환원 재촉구 성명서'를 내고,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지역자본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만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의 발전)에 가장 충실한 해법"이라며 "금융당국이 원칙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방은행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으로 환원하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통일부, 광주 '유엔 YLP' 北 청소년 참가 승인

22일~내달 3일 호남대서 19개국 34명 참가

북한 청소년들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유엔(UN) 행사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 조직위)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참석할 청소년 3명, 인솔자 1명 등 4명의 명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날 오전 방남(訪南)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호남대학교에서 열리는 YLP에는 북한 청소년 3명과 인솔자 1명을 포함해 아시아 19개국 34명이 참가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5~6시 사이에 호남대학교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U대회 조직위와 UNOSDP 공동프로젝트인 YLP는 분쟁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YLP는 지난해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처음 열렸으며, 아시아지역 최초로 U대회가 개최되는 2015년까지 매년 광주에서 열리게 된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호남대학교에서 YLP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리더십 강의, 스포츠·평화·장애인·교육 관련 이론 및 실기교육, 태권도·축구·수영·탁구·조정·복싱 등 스포츠 활동, 한복 입기, 한국 음식 만들기, 다도, 도예, 율령 공

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는 국제경기연맹(IF)에서 협의된 종목별 전문 스포츠 코치들이 참여해 직접 지도하게 된다. 참가자들에 대한 항공료는 UN과의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원하며, 숙박은 호남대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들은 특히 24~25일에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참가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충주 출신인 반 총장은 여름 휴가차 고향을 찾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을 참석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북한 청소년의 YLP 참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스포츠 관계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LIRIKOS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가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아름다운 이유를 유지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비단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닷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 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리리코스는 뷰티미터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9)01502000(사)리리코스 080-023-5454 www.lirkos.co.kr